



신년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미·이라크 전쟁의 발발과 중국에서의 사스 발생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우리경제는 내수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증대 등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출은 1,943억불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여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표준과 기술평가를 선도하는 기술표준원도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신기술·신제품 등의 국가표준을 적극 발굴,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산업기술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전기용품, 일반공산품 등 국민생활관련 제품의 안전관리, 국내개발 신기술의 인증 등 각종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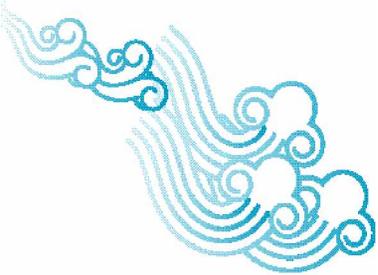
특히 국가표준의 인터넷 무료 알람서비스(약 80만건 접속), 국민인체치수조사의 전면실시, 39년만의 색채표준의 전면개정,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사실상 완료하는 등 산업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기술계, 산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

세계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간, 기업들 사이에 Digital Gap이 좁혀지며 기술과 표준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신기술개발은 물론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기업 경쟁력 및 생존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기술표준원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기간산업의 표준화는 물론 지난해 수립된 반도체, 정보기술, 지능형로봇 등 신성장 산업분야 표준화 5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표준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등 사회적 신수요분야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시험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을 향상시켜 국가간 교역이나 국내 거래시 기업이 부담하는 제품에 대한 이중검사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의 인증을 확대하여 개발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한·일, 한·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상기술장벽 (TBT), 강제검사제도의 상호인정(MRA)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표준을 장악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금년부터는 산업, 기술분야에서의 표준화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표준적(標準的)인 사고(思考)와 행동을 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나라가 세계의 중심국가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산업, 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심기일전하여 하시는 일에 큰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년 1월 2일

기술표준원장 